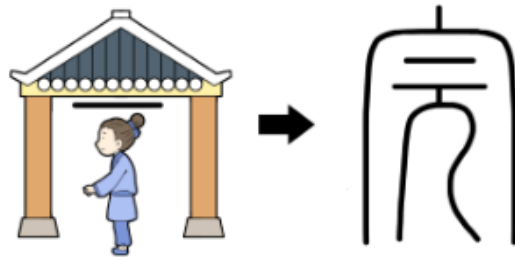


5
-
61

회의문자 ①



完

완전할
완

完자는 '완전하다'나 '일을 완결 짓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完자는 宀(집 면)자와 元(으뜸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元자는 사람의 머리를 강조해 그린 것으로 '으뜸'이나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完자는 본래 집짓기를 끝마쳤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집을 지을 때는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 그래서 完자는 '으뜸'이라는 뜻을 가진 元자를 응용해 '집을 으뜸으로 지었다.' 즉, 집을 잘 지었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집을 잘 지었다는 것은 공사가 마무리됐음을 뜻한다. 그래서 完자는 '끝내다'나 '일을 완결 짓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完

소전

完

해서

5
-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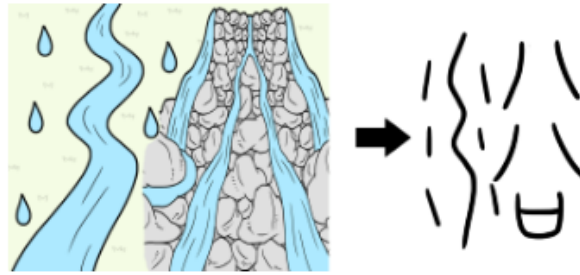
曜

빛날 요:

형성문자 ①

뜻을 나타내는 날일(日 ☞ 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曜(적→요)로 이루어짐. 해가 환하게 「비치다」의 뜻.

회의문자①



浴

목욕할
욕

욕자는 '목욕하다'나 '몸을 씻다', '수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욕자는 水(물 수)자와 谷(골짜기 곡)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谷자는 산등성이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를 그린 것으로 '골짜기'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린 谷자에 水자를 더한 욕자는 계곡물에 '목욕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浴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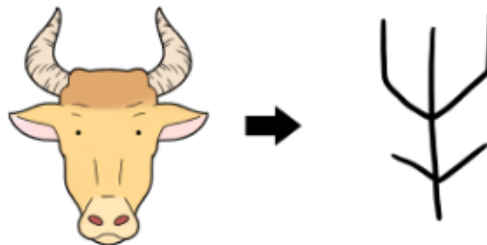
浴

소전

浴

해서

상형문자①



牛

소 우

牛자는 '소'를 뜻하는 글자이다. 牛자의 갑골문을 보면 뿔이 달린 소의 머리가 간략하게 𠂔 그려져 있었다. 갑골문에서부터 소전까지는 이렇게 소의 양쪽 뿔이 잘 묘사되어 있었지만, 해서에서는 한쪽 뿔을 생략해 '절반'을 뜻하는 半(반 반)자와의 혼동을 피하고 있다. 농경 생활을 하는 민족에게 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 느리지만 묵직한 힘으로 밭을 갈거나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소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牛자가 부수로 쓰일 때는 '제물(祭物)'이나 '농사일'과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牛

갑골문

牛

금문

牛

소전

牛

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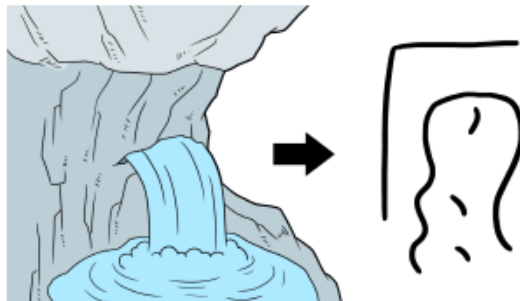
雄

수컷 웅

형성문자①

뜻을 나타내는 새추(隹 ㇾ 새)부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 㫃(굉→웅)이 합(합)하여 이루어짐. 굳센 수컷새(새추(隹 ㇾ 새)部)의 뜻이 합(합)하여 「수컷」을 뜻함. 새의 수컷, 그것으로부터 굳세다, 웅감하다는 뜻으로 되었음.

상형문자①



原

언덕 원

原자는 '근원'이나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原자는 厂(기슭 엄)자와 泉(샘 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泉자는 돌 틈 사이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모습을 한자화한 것이다. 여기에 厂자가 결합한 原자는 물길이 시작되는 곳을 뜻했다. 그러나 지금의 原자는 물길의 시작점이 아닌 '근본'이나 '사물의 시초'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후에 水(물 수)자를 더한 源(근원 원)자를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다만 실제 쓰임에서는 原자와 源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原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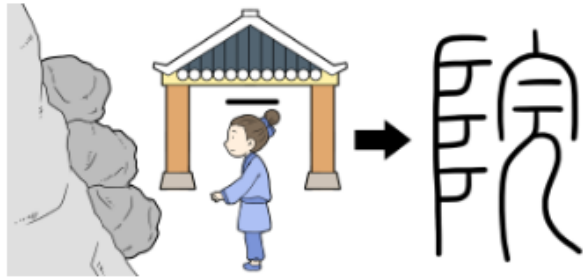
原

소전

原

해서

회의문자①



院

院자는 '집'이나 '정원', '관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院자는 阜(β : 언덕 부)자와 完(완전할 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完자는 집을 온전하게 잘 지었다는 의미에서 '완벽하다'라는 뜻이 있다. 院자는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집을 뜻하는 完자에 阜자를 더한 것으로 담벼락이 있는 잘 지어진 큰 집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院자는 잘 지어진 집(完)과 담장(阜)을 함께 표현한 글자이다. 지금은 주로 규모가 큰 건물을 뜻할 때 쓰인다.

집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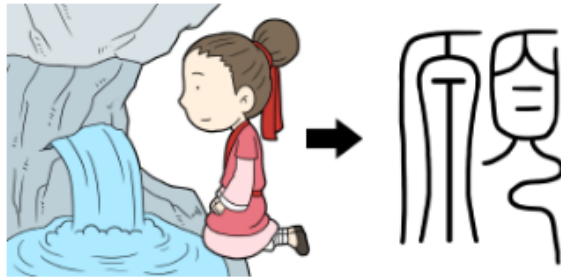
院

소전

院

해서

회의문자①



願

願자는 '원하다'나 '바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願자는 原(근원 원)자와 頁(머리 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願자는 본래 '큰 머리'나 '머리가 커지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커지다'는 아는 것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후에 아는 것이 많아지면 바라는 게 많아진다는 뜻이 확대되면서 '원하다'나 '바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끊임없이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린 原자는 발음 외에도 끊임없이 바란다는 뜻도 함께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할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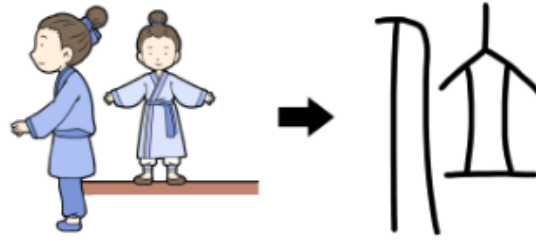
願

소전

願

해서

회의문자①



位

자리 위

位자는 '자리'나 '위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位자는 人(사람 인)자와 立(설 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立자는 팔을 벌린채 서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서다'나 '똑바로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位자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그린 立자에 人자를 결합한 것으로 사람이 서 있는 '위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고대 계급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앉는 위치도 달랐다. 그래서 位자는 '자리'라는 뜻 외에도 '지위'나 '직위'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位

소전

位

해서

상형문자①



耳

귀 이:

耳자는 '귀'나 '듣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耳자는 오른쪽 귀의 귓바퀴와 귓볼을 그린 것이다. 耳자는 사람의 귀를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귀의 기능인 '듣다'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글자에서는 항아리나 술과 같이 단순히 물체의 '손잡이'를 뜻할 때도 있다. 참고로 중국 고문(古文)에서는 耳자가 종종 '~일 뿐이다'나 '~일 따름'과 같은 어조사로 가차(假借)되어 쓰이곤 했다.

耳

갑골문

耳

금문

耳

소전

耳

해서